



## “더 부드럽게” 2030 주당 마음을 잡아라

### 국내 위스키업계, 저도주 주도권 경쟁

국내 위스키업계의 주력 시장이 40도 이하의 '저도주'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혼술족이 늘고, 유통 만취하기 보다는 가볍게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술 문화가 주류를 이루면서 올해 8월까지 알코올 40도 이상인 위스키 판매량은 23.7% 감소했다. 이와 달리 40도 이하의 저도 위스키는 전년 동기보다 16.5%나 늘면서 점유율이 33.9%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저도주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이 시장을 잡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독주를 선호하는 40대 이상의 전통적인 고객층 보다 이제 막 술을 접하고 즐기는 20-30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젊은 감각의 가벼운 저도주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가볍게 즐기는 술 문화로 독주 인기 하락  
다이하오·페르노리카, 저도주 신제품 출시  
골든블루, 1위 수성위에 효자상품 리뉴얼



24일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진행된 출시 행사에서 다이하오코리아 조길수 대표(오른쪽)와 신제품 모델인 배우 현빈이 '더블유 시그니처 12'를 소개하고 있다.

### ●다이하오코리아, '더블유 시그니처 12'로 자존심 회복할까

국내 시장 점유율 1위(36%)인 다이하오코리아는 24일 알코올을 35도로 낮춘 '더블유 시그니처 12'를 내놓고 자존심 회복에 나섰다. 다이하오코리아는 위스키 전체 시장 점유율은 1위지만 저도주 분야에서는 골든블루에 밀리고 있다. 토종 기업인 골든블루는 저도주 시장에서 상반기 시장 점유율 약 57%를 기록하며 1위를 지키고 있다.

'더블유 시그니처 12'는 다이하오코리아가 저도주 시장 1위 탈환하기 위해 12년 숙성된

스코틀랜드산 위스키 원액을 사용한 야심작이다. 연산이 표기된 원액을 사용했으며, 세계적인 마스터 블렌더 더글라스 머레이, 크레이그 웰레스, 캐롤린 마틴이 함께 블렌딩해 최상의 부드럽음과 깊은 풍미를 추구했다. 가볍고 경쾌한 저도주 문화에 어울리도록 병 디자인도 세련된 다크그레이 컬러에 부드럽게 이어지는 곡선 모양을 적용해 제품 고유의 부드럽음을 표현했다. 도수는 35도, 용량은 450ml, 가격은 2만6026원(공급가 기준, VAT별도).

다이하오코리아는 2015년 출시한 더블유 아이스, 지난해 11월 선보인 '더블유 시그니처

17'에 이어 '더블유 시그니처 12'까지 다양한 저도주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다이하오코리아의 저도주 시장 점유율은 2014년에 0%에서 2015년 20%, 2016년 25%, 2017년 상반기 기준 28%로 계속 성장 중이다.

### ●페르노리카코리아, '다-라이트 바이 임페리얼'로 맞불

골든블루와 함께 국내 위스키 시장 점유율 2,3위를 다투는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스카치 위스키 베이스의 저도주 '다-라이트 바이 임페리얼'을 출시했다. 20~30대 소비자는 물론 스카치 원액의 저도주를 처음 접하는 입문자들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디자인은 젊은 감성을 반영해 파티와 잘 어울리는 메탈릭 실버와 다크 엠버 컬러로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완성시켰다. 도수는 35도, 용량은 450ml, 가격은 2만540원(공급가 기준, VAT별도). 이 제품이 상반기 9%대에 머문 저도주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골든블루, 저도주 1위 제품 '골든블루 사피루스' 리뉴얼 출시

저도주 시장의 선두주자 골든블루는 판매량 1위 제품인 '골든블루 사피루스'를 리뉴얼해 11월부터 출시한다. '골든블루 사피루스'는 국내 저도 위스키 시장을 개척한 것은 페르노리카코리아를 제치고 골든블루가 위스키 시장 2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끈 효자다. 올해 상반기 전체 위스키 시장 점유율에서 골든블루는 24%로 2위,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2%로 3위에 올랐다. 리뉴얼된 '골든블루 사피루스'는 원액은 스코틀랜드산을 그대로 사용해 본연의 맛을 유지하면서, 50년 경력의 마스터블렌더인 노먼 메디의 블렌딩을 통해 더 깊어진 풍미와 부드럽고 감미로운 맛을 완성한 제품이다. 도수는 36.5도, 용량은 450ml, 가격은 2만3940원(공급가 기준, VAT별도).



▲다-라이트 바이 임페리얼 ▲골든블루 사피루스

### 한 눈으로 보는 경제 25일

코스피지수	2492.50	▲	+2.01
코스닥지수	689.14	▲	+1.93
日 닷케이지수	2만1707.62	▼	-97.55
중상하이 종합	3396.90	▲	+8.65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06	▲	+0.03
환율 (원·달러)	1128.50	▼	-1.50
국내금값 (원/그램)	4만6198.08	▼	-190.05

### 오늘의 얼굴

#### 서경배 회장, 글로벌 CEO 20위 선정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이사 회장(사진)이 미국 하버드대가 발간하는 경영 저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7년 글로벌 CEO 경영 평가'에서 세계 20위에 선정됐다. 아시아에서는 18위의 일본 헬스케어 기업 시스멕스의 이예츠크 히사시 CEO에 이어 2위다. 서경배 회장은 한국인 경영자로서는 2013년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3위, 정몽구 현대차회장 6위에 오른 이후 4년 만에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1위는 패션 브랜드 자라를 운영하는 스페인 인디텍스 그룹의 파블로 이슬라가 올랐고, 2위와 3위는 영국의 광고 그룹 WPP의 마틴 소렐과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켄스 황이 각각 선정됐다.

### 비즈 TALK TALK

●“다주택자 버티면 4월부터 보유세, 그제 상식”(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25일 CBS라디오 '김현영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하며)

●“고금리 가계대출 차증 저축은행, 사실상 대부업체다”(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25일 예금보험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상위 저축은행일수록 고금리 가계신용대출 의존도가 높으며)

●“문재인호 마지막 승선자로 겸허히 자신 돌아보겠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후보 지명 후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감을 밝히며)

### 데이터 경제

#### 가계부채, 5년간 1인당 2000만원 증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23일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가계부채 대출자 1인당 평균부채금액은 7747만원으로 지난 2012년부터 1928만원(3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431만원(48.9%)으로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



## 현대차, '자율주행'·'커넥티드 카' 기술에 56억 붓는다

모빌리티 기술 강화 위한 전략적 투자  
ACM, 미 미시간주에 연구단지 건립

현대차그룹이 자동차 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카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다. 현대차그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미래 모빌리티 연구기관 ACM(American Center for Mobility)의 창립 멤버로

참여, ACM이 추진 중인 첨단 테스트 베드 건립을 위해 500만 달러(약 56억원)를 투자한다.

ACM은 현재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약 200만㎡ 규모로 자율주행 연구 인프라 및 제품 개발 주행 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연구단지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각종 주행 상황과 기후, 환경 등 실험 평가 및 검증 조건을 다양하게 설정해 반복, 재현할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 베드 시설이다. 현대차 그룹은 A

CM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술 검증, ADAS 로직 평가, V2X 알고리즘 개발 등을 통해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카 분야의 기술적 완성도 및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미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핵심 기술의 메카인 미국 현지에서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카 분야 핵심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현대차그룹이 미국의 미래 모빌리티 연구기관 ACM이 추진 중인 첨단 테스트 베드 건립에 500만 달러(약 56억원)를 투자한다. 현대·기아차 미국기술연구소 소장 앤디 프렐스와 존 맥독스 ACM CEO가 ACM 연구단지 건립 현장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 현대자동차

## 게임빌 '아키에이지 비긴즈' 글로벌 출시

엔리얼엔진 사용한 수집형 RPG로 화제

게임빌은 신작 모바일게임 '아키에이지 비긴즈'를 25일 글로벌 출시했다. 인기 PC 온라인 게임 아키에이지의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수집형 3D 역할수행게임(RPG)이다. 전민회 작가가 참여한 아키에이지 연대기 원작 스토리와 세계관을 반영해 원작의 2000년 전 이야기를 담고 있다.

수집형 RPG의 재미를 극대화해주는 엔리얼엔진4 기반 고품질 그래픽 디자인이 강점. 여기에 모바일 게임 최초로 '플립형 전투 방식'을 통한 역동적 액션과 화려한 콤보 연출 타격감을 제공한다. 영지전과 실시간 레이드 등 전투 콘텐츠도 인기 요소로 꼽힌다. 32종의 원작 영웅들이 등장하고, 인기 콘텐츠인 하우징, 낚시,



아키에이지 비긴즈 메인 이미지. 사진제공 | 게임빌

무여 등 생활형 콘텐츠도 스마트폰 특성에 맞추었다. 원작이 북미와 유럽에서 인기가 높았고 러시아 국민 게임으로 불렸던 만큼 글로벌 히트작으로 올라설 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병근 기자 dionys@donga.com

## 도자 브랜드 이도, 새 브랜드 '아뜰리에' 론칭

현대백 진출, 11월 신세계백 오픈 예정

도자 브랜드 이도가 백화점 채널용 브랜드 '이도 아뜰리에'를 론칭했다.

이도는 25일 서울 가회동 본점에서 새 브랜드 론칭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감각과 이도만이 가지고 있는 세련된 감성을 함께 녹여낸 브랜드"라며 "예술과 기술의 균형을 맞춰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브랜드의 비전"이라고 소개했다.

이도 아뜰리에에는 백화점 채널을 통해 유통되는 게 특징이다. 현대백화점 목동·판교점에 진출했고, 11월14일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점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이윤신 이도 회장은 "생활이 곧 예술"이라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오픈한 '이도 아뜰리에' 매장 전경. 사진제공 | 이도

는 기업 이념에 맞춰 일상 공간에서 예술품을 즐기는 고품격 문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편집 | 이수진 기자